내년 입학사정관제 3만2543명 선발

전남대·광주교대 등 60곳으로 늘어

201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과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심사 결과 총 전남대·광주교대 등 60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대학이 2011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게 될 신입생 인원은 총 3만254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원 대학 수는 13곳, 선발 인원은 1만2000여명 늘어난 것이다.

60개 대학 중 고려대·서울대·연세대·전남대·광주교대 등 29곳은 선도대학으로, 서울시립대·아주대 등 21곳은 우수대학으로, 경기대와 한국교원대 등 10곳은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도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학, 우수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계획이 우수한 대학,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의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부 등 특정 모집단위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을 말한다.

올해 60개 대학에 지원할 예산은 총 325억원으로 선도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8억원씩 총 240억원, 우수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3억5000만원씩 총 75억원이 지원된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에 따라 교과부는 전문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해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국외대 등 7곳을 입학사정관 양성·훈련기관으로 선정해 총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현장점검,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 결과 〈자료:교육과학기술부〉

구분	대학명
▶선도대학	
기존 (15교)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
신규 (14교)	경북대, 경희대, 광주교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림대, 한양대
▶우수대학	
기존 (17교)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충주), 건양대, 경원대, 공주대, 광주과기원, 목포대, 부경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전주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홍익대
신구 (4교)	경상대, 동아대, 순천향대, 충주대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대학	
10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사회복지학부), 경기대(장신구금속디자인학과), 경운대(간호학과), 관동대(의학과), 국민대(경영학부), 나사렛대(재활자립학과), 영남대(자율전공학부), 우석대(특수교육과), 우송대(인터내셔널 비즈니스학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

지구사랑 나라사랑 그리기대회

광주 초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들이 17일 북구청 주최로 무등산 청풍쉼터에서 열린 '지구사랑 자연사랑' 사생대회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청렴·윤리 최하위 집단은 국회의원

권익위 성인남녀 1000명 설문 조사

우리나라 국민이 청렴성과 윤리 의식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직업군은 국회의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지난 3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의 청렴성이 낮다는 응답은 65.2%로 25개 직업군 중 가장 낮게 평가됐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의원의 청렴성이 높다는 응답은 8.9%, 보통은 25.7%였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52.3%)과 건설회사 임직원(47.9%), 지방자치단체장(43.4%), 의료기기·제약업체 임직원(41.8%), 변호사(40.8%) 등의 순으로 청렴성이 낮게 평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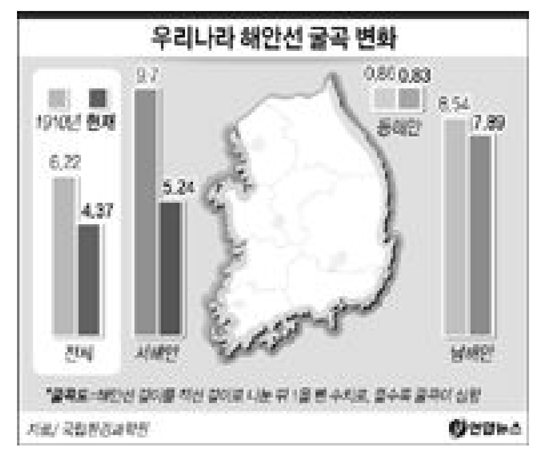
최근 '검사 스폰서' 의혹으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검사의 경우 청렴도가 높다는 인식은 21%로 전체 25개 직업군 중 14위였다. 판사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인식이 29%로 법조계 중 가장 높았고 변호사는 16%에 불과했다.

경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5.9%만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높다고 답했다.

공무원 중에서는 외교·안보부처 공무원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높다는 응답이 29.1%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부 등 사회·문화부처(26.8%), 지방자치단체(23.3%),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일반행정부처(23.2%), 경제부처(19.4%) 공무원 순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25개 직업군 중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높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교사(47.8%)였으며 종교인(45.3%)과 군 장교(39.6%), 대학교수(35.3%), 의사(34.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순천만 갯벌습지 100년새 3분의 1 줄었다

전국 해안선은 26% 감소



매립과 도로건설 등으로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이가 26%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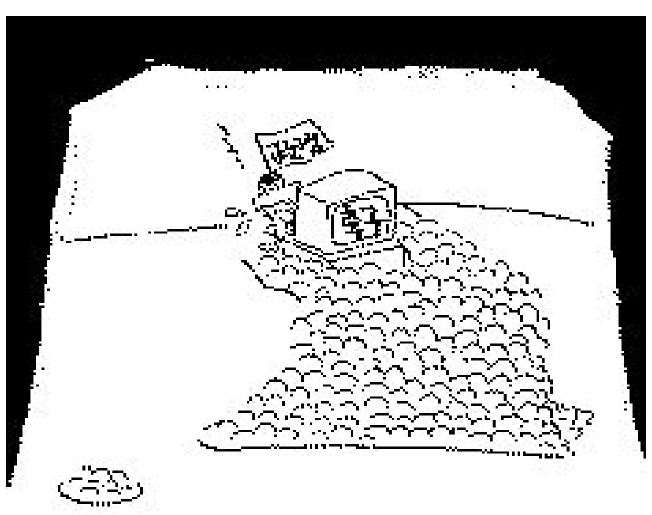
1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1910년과 현재의 우리나라 지형도(축척 1대 5만)를 비교한 결과 해안선의 길이가 7569km에서 5620km로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섬을 포함한 1910년대 서해안의 굴곡도(해안선 길이를 직선 길이로 나눈 뒤 1을 뺀 수치로, 클수록 굴곡이 심함)는 9.70이었으나 현재는 5.24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남해안의 굴곡도는 8.54에서 7.89로 줄었고 동해안의 굴곡도는 0.86에서 0.83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 해안선 전체의 굴곡도는 6.22에서 4.37로 낮아졌다. 서해안의 굴곡도가 특히 많이 감소한 것은 매립과 도로 건설 등으로 굴곡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연안습지로 유명한 순천만은 갯벌 면적이 100년 전에 비해 3분의 1 줄어들었고 사라진 습지 대부분이 농경지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光日만평 - 김종두



제발 좀 닮아봐라

전국 사회적 기업 232개 육성

행안부, 하반기 208억 투입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에 232개의 사회적 기업이 육성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겸한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총 208억원을 올 하반기에 투입해 주민 주도의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벌여 내년까지 232개의 기업을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정부에서 재정 및 경영 분야의 지원을 받는 업체다.

행안부는 시·도 발전연구원과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지도자를 양성하고 창업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지정되고 전문 교육프로그램도 개설된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기업과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해 금융, 컨설팅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 남성 암 사망률 세계 4위

평균수명 79세 … 10년 이상 늘어

우리나라 남성의 암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자살 사망률도 높아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한 삶을 보장해 주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격년으로 30개 회원국의 보건의료 상황을 살펴 펴내는 '한 눈에 보는 OECD 보건지표 2009'를 한국어로 요약 번역해 발간했다.

우리나라의 2007년 기대여명은 79.4세로 OECD 평균 79.1세보다 길었다. 1960년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더 장수하는 셈이다.

65세 연령의 여성 기대여명은 20.5세로 OECD 평균 20.2세보다 긴 반면 남성은 16.3세로 OECD 평균 16.9세보다는 짧았다.

이같은 남녀 차이는 암 사망률과도 연관돼 있다.

여성의 암 사망률은 95명으로 OECD 평균 126명보다 크게 낮은 편이지만 남성의 암에 의한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242명으로 OECD 평균 212명보다 훨씬 많았다. 순위로도 4위에 해당됐다. 이는 우리나라 남성의 높은 흡연율과 음주율, 그리고 건강관리 소홀, 높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성의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65명으로 OECD 평균 55명보다 높았고 뇌졸중 사망률도 남성이 97명, 여성 64명으로 OECD 평균이 남성 60명, 여성 48명인 것에 비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암 사망률은 154명으로 OECD 평균(162명)을 밑돌았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6.1명으로 포르투갈(17.4명), 멕시코(18명)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9.6명이었다. /연합뉴스

부 고

도곡가족스파랜드(주)회장·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조구현, 청송건설(주)·도곡가족스파랜드(주)대표이사 조상현, 덕진건설(주)대표이사, 광주체조협회회장 조철호의 모친이신 밀양김씨 김연안께서 2010년 6월 17일 오전 7시10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발인일시 : 2010년 6월 19일(토요일) 오전 9시
• 빈소 : 조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 장지 : 전남 영광군 신북면 선영

2010년 6월 18일

상주 조구현, 동현(前금호고속상무이사), 상현, 명현(前그룹소페아부장), 철호

호상 : 신홍수
연락처 : 장례식장 062)231-8901
회 사 062)671-0485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도곡가족스파랜드(주) 청송건설(주) 덕진건설(주)
(주)나라건설 써에스건설(주) 임직원일동